

등록금 문제로 뜨거웠던 캠퍼스

학생총회 결과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마무리 정주택 총장 낙산의 메아리에 입장 표명

지난 24일 정주택 총장이 총학생회실을 직접 방문해, 학생총회에서 정해졌던 등록금 인상분 전액 지급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이 자리에서 정주택 총장은 김태성(정통 4총학생회장)에게 올해 등록금 인상 금액 중 반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반은 수혜 장학금으로 돌리는 방안이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주택 총장은 수혜 장학금 확보에 대해 학부모들의 동의를 구하는 실질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후 이 사건이 학내에 알려지면서 학교 전체에 등록금 인상분 처리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오게 되었다.

김태성 총학생회장은 다음날 바로 확대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정주택 총장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 자리에서 권경철(한국어문 4한국어문학부 학생회장)은 "이 문제는 학생 최고 의결기관인 학생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인 만큼, 학교 내에서 누구도 알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지금 상황에서 이 사안을 반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학생총회를 여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학생회 임원 모두 이 의견에 동의했고, 결과적으로 회의는 총장과 총학생회장이 다시 한 번 면담을 가지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그리고 지난 26일 총장과 총학생회장의 두 번째 면담이 이어졌다. 이날



▲ 지난 9월 22일 있었던 학생총회에서 학생회 간부들이 요구사항이 담긴 티셔츠를 운동장 펜스에 걸어놓았다.

면담은 총장실에서 이뤄졌으며, 김태성 총학생회장 외에 강범석(경제 3사 회과학대 학생회장)과 김미정(한국어문 4부총학생회장)이 함께했다. 정주택 총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등록금 인상분 2.6%의 반은 수혜 장학금으로 돌리는 방안이 대해 다시 제안했다. 하지만 학생대표들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했고, 결과적으로 학생총회

에서 결정된 사항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12월중으로 등록금 인상분이 모든 학생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단, 기업은행 통장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금액 전달이 좀 더 늦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태성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에게 인상분 금액이 뒤늦게

전달되는 이유는 분할 납부자 문제, 가을 졸업자, 휴학생, 단대별 지급액 차이 등 다양하다. 본래 학교에서도 단순히 인상이 된 만큼만 돌려주면 끝날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지급 시기를 늦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성 총학생회장은 "학교에서 기업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하

고 있기 때문에 타 은행계좌로 인상된 금액이 들어갈 경우 몇 가지 작업이 더 필요하다. 때문에 기업은행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금액 전달이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주택 총장은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낙산의 메아리에 알렸다. 이 글에서 정주택 총장은 "두 처장(기획협력처장, 학생지원처장)이 약속했던 대로 등록금 인상분이 환급될 것이다. 기급적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그 과정을 학생대표들과 함께 협의해 학생들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학생총회에서 정해진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주택 총장은 "다만 학생들이 저소득층 장학금을 기부할 의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사가 쉽게 실현될 수 있도록 총학생회 또는 학생지원팀에서 접수창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글에 대해 김태성 총학생회장은 "정주택 총장의 의견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학생총회에서 정해진 의견을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 제안 내용에 대해 반대했다"며 "학생총회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삼 학 승

반값등록금 대비 경영컨설팅 도입

지난 26일 서울시장 재보선에 박원순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됐다. 세대별 득표율을 조사한 결과, 20대의 약 70%가 박원순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경원 후보에 비해 박원순 후보가 20대를 위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생을 위한 공약을 많이 내세운 결과로 보인다.

그는 대학생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청년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고, 기업-대학 인재연동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대학생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주변 재정비지구를 활용하고 공공원룸텔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희망하우징사업 즉 다가구·다세대 매입주택을 보급하고 대학 내 기숙사 건립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학생 주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Youth Housing' 사업을 보완 및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학생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있지만 학생들의 관심이 가장 뜨거웠던 공약은 등록금관련 공약이 아닐 수 없다. 박원순 시장은 공약에서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추진 및 서울장학재단 기금과 수혜자 확대, 금융기관과 서울시가 이자를 매칭하는 '희망학자금 통장' 사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고 난 후에도 학생들은 등록금관련 공약이 지켜질 것인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다. 특히, 서울시립대 학생들은 반값등록금 공약이 시행될 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에는 민주당이 2012년부터 반값등록금 정책이 부분적이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우선 국공립대부터 재정 투입을 통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사립대도 재단 적립금을 활용, 정부 재정지원,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주당의 계획대로 반값등록금 정책이 국공립대에서 사립대로 확대돼 적용될 경우, 우리학교도 등록금 인하 적용대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우리학교도 지난 8월, 반값등록금 정책을 대비해 학교 재정건전화 전략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영컨설팅 용역업체를 공개 입찰하기 시작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선발된 업체는 내년 1년 동안 우리학교의 경영컨설팅을 맡게 된다. 전문컨설팅 업체가 진단한 우리학교는 어떤 재정 상태일 것이며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 학교는 어떤 전략을 수립해 적절한 대처를 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김하늘 편집국장

'시골의사' 박경철과 함께한 명사 초청강연회

'시골의사'로 유명한 경제평론가 박경철(안동신세계연합클리닉)원장이 10월 25일 명사초청강연회에 초청되어 강연을 펼쳤다. 이번 강연회는 '자기 혁명을 이끄는 공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야간총학생회와 사회과 학대 학생회가 공동주최하였다.

강연의 큰 흐름은 '자기 혁명'에 관한 이야기였으며, 사회적인 담론과 관련한 박 원장의 발언이 강연 시간 대부분을 차지했다.

박경철 원장은 화폐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화폐의 특성 중 하나인 추상성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화폐를 적당히 소유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다"며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을 품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탐욕을 계속 채워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결과중심주의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하게 되었다"며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분야에서 결과중심주의로 인해 생긴 폐해를 지적했다. 박 원장의 문체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의 자본주의는 '폐기를 바탕으로 한 성장'으로 버려왔다. 이것은 말쑥한 제품을 버릴 제품으로 만들어버리고 새 제품을 만들어 팔려는 자본의 수법인데, 주로 테크놀로지와 브랜드에 대한 환상으로 이루어진다"며 "또 다시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

를 들추어냈다.

여러 문제제기 후 그는 새 시대를 향해 눈길을 돌렸다. 박 원장은 "기성 시대의 발전은 화석연료와 환경 파괴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요즘 성공하는 산업 중, 기성의 방법으로 성공한 산업이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새 시대의 산업은 사람 중심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예로 각종 소셜네트워크, 헬스케어, 문화 산업 등을 들었다.

이어서 그는 "여러분 스스로 미래 시대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새 시대의 주인공은 기성세대가 아니라 여러분이기 때문이다"며 이른바 '새로운 시대'에 있어야 할 젊은이들

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박 원장이 직접 추천하는 경품 행사가 이어져 10명의 학생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박 원장의 저서를 받았다.

강연회에 참석한 신용우(지정 1)학생은 "청년에게 희망적인 말이 많이 나왔던 강연이었다고 생각한다. 자칫 어려울 수 있는 말을 농담과 함께 잘 풀어낸 점도 좋았다. 다만 미래를 청년에게 맡긴다면 응원할 뿐 특별히 제시해주는 가이드라인은 없었던 것 같고, 이러한 점은 좀 공허하지 않았나 싶다"며 청중 입장에서 느낀 강연의 장단점을 평했다.

이휘성 기자 celreich@hansung.ac.kr



▲ 낙산관에서 강연 중인 박경철 원장

2 스마트 학생증, 실현 될까	4 반월가 한국판 시위
6 오디션 프로그램의 서사성	7 초상화의 비밀을 엿보다

지면안내

학생회소식

총학생회 : 11월 1~8일 낙산체전
종목 : 축구, 피구, 발아구, 농구, 족구
참가팀 : ROTC팀 포함 총 23팀(종목마다 다를 수 있음)



한성대신문사

제36기 수습기자 모집

내 책상, 내 컴퓨터, 내 사물함, 내 공간 그리고 내 사람들이 있는 곳
아지트가 필요한 자, 신문사로 오라!











교내 모든 소식을 가장 먼저!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토론은 나의 즐거움!
게다가 원고료와 활동비까지!!

대상 : 우리학교 재학생 1, 2학년
문의 : 편집국장 010-4534-8682

스마트 학생증, 실현 될까

총학생회 스마트 학생증 상용화 추진, 11월 중에 결과 발표

최근 총학생회와 취업지원팀은 스마트 학생증 상용화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월 1일에 열리는 스마트 학생증 상용화 찬반 회의를 통해 결과가 발표된다. 이 날 회의가 상용화 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11월 초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방안의 설문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학생증’이란 학생증이 교통카드 기능이나 체크카드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시켜 편의성을 높인 것을 말한다. 현재 고려대, 연세대, 광운대, 경희대, 상명대, 동국대, 성신여대, 건국대 등 서울 소재의 많은 대학들이 스마트 학생증을 사용하고 있으며 삼육대와 성균관대는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총학생회 역시 타 대학의 추세에 맞춰 스마트 학생증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태성(정통 4) 총학생회장은 “현재 대부분의 대학이 스마트 학생증을 사용하고 있다.

추세에 맞추기 위해 우리학교에도 스마트 학생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스마트 학생증이 보급되면 생기는 편의성 역시 스마트 학생증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스마트 학생증 상용화 추진 이유를 밝혔다. 또 김태성 총학생회장은 “우리학교에서 스마트 학생증 상용화가 이뤄지면, 먼저 학생증을 교통카드와 체크카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언급했다.

스마트 학생증의 종류에는 카드 학생증과 모바일 학생증이 있다. 카드 학생증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대학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며, 학생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분실로 인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일반 학생증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반면 모바일 학생증은 분실의 위험도 적고 분실했을 때의 피해도 거의 없다. 또한 상용화 자체를 빨리 진행

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스마트 폰을 지닌 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총학생회에서는 이 두 가지 방안 중 모바일 학생증을 채택해 스마트 학생증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성 총학생회장은 “모바일 학생증을 채택하면 지금 당장은 스마트 학생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 폰 보급률이 높아지는 만큼 카드 학생증보다는 모바일 학생증을 택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모바일 학생증을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직 스마트 학생증 상용화에 대한 실행여부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설문조사 내용이나 상용화 작업 스케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11월 이후에 스마트 학생증 상용화 작업이 시작될 경우, 실질적인

상용화는 내년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성 총학생회장은 “지난 5월 학생들이 희망하는 적립금 사용처 설문조사에서 스마트 학생증 상용화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학생들이 바라는 일인 만큼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학교 측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용화가 이뤄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 지난 5월 4일 학교 적립금 사용 방안 설문조사에서 한 학생이 스마트학생증에 표를 행사하고 있다.

간주린소식

임용고사 합격자 특강 개최

지난 10월 26일 교직과 주최로 미래관 ELC에서 임용고사 합격자 특강이 개최되었다. 강사로는 임용고사 합격 후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동 중인 고동현(회화 04년 졸업)출입생이 초청되었다.

이번 특강의 주제는 ‘임용고사 대비 학습 전략’이었다. 교직과정 학생들에게 임용고사의 실제 경험과 실질적인 준비 과정 정보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강이었다. 특강에 참석한 정예슬(예니제품 3)학생은 “임용고사에 응시할 계획이 있는데, 응시하기 전에 유용한 정보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참여하게 되었다”며 “임용고사 전반에 대해 잘 설명해 주었고, 알려준 시험 대비 계획도 구체적이었다. 특강 주제인 ‘학습 전략’을 쉽게 설명해주려는 목적이 부합한 특강이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강 관련 자료는 교직과 홈페이지 ‘학과자료’ 페이지에 업데이트되어 있으며, 이 자료에는 모집분야별 경쟁률 등도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 학생들, 한글 실력 뽐낸다

지난 7일 연세대에서 열린 외국인 한글백일장에서 우리학교 소속 중국인 학생 3명이 장려상 등을 수상했다. 장려상 수상자는 왕천호(한국어과정 고급반)학생과 현순김(한국어과정 고급반)학생이며, 공개리(한국어과정 고급반)학생은 입상을 하였다.<수상자 5명에 계속>

이 중 왕천호 학생은 시적 화자와 부드러운 자연의 교감을 주제로 한 ‘바람’이라는 작품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왕천호 학생은 “언어교육원 한국어과정 선생님의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 결과로 장려상까지 수상하게 된 것 같다”며 “작품을 창작할 때 받은 느낌을 잘 실려 표현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다른 장려상 수상자인 현순김 학생은 그의 시 작품에서 ‘사계절에서 느낀 감정을 잘 형상화해냈다’고 평가받았다.

이 밖에도 지난 6일에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외국인 한글글씨 쓰기 대회에서 하보(대학원)학생이 동상을 수상했고, 그 외 6명의 학생이 입상했다.

한성지식정보창고 백서 발간 임박

기획전략팀에서 11월 중순 안으로 한성지식정보창고백서(이하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서는 학교 홈페이지 좌측의 ‘한성대 지식창고’에 집적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총 1천595건의 아이디어가 백서에 포함될 예정이다.

최민(기획전략팀)팀원은 “이 백서는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지식창고 운영 1주년을 맞이해 발간하는 결과 보고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누군가가 일반적으로 쓴 백서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한 지식 모아진 백서이다. 특히 학생들이 작성한 아이디어가 많이 포함되었다.”며 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백서라는 점을 강조했다.

발행된 백서는 한성대 구성원 모두에게 개방된다.

제3회 외국인 말하기 대회 개최

지난 10월 28일 창의관 소강당에서 언어교육원이 개최한 제3회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다. 주제는 ‘한국 생활’이었으며, 1차 예선에 60여명 가량이 참가했다.

허우경(한국어과정)책임연구원은 “기존 1, 2회 말하기대회는 한국어과정 고급반 외국인 학생만을 위한 대회였다. 하지만 이번 3회 대회에서는 한국어과정 소속이 아닌 외국인 학생과 교원에게도 접수를 받다 보니 기존 대회 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대회 규모가 더 커질 예정이다. 내년에는 개교 40주년을 맞이하여 해외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엘메니치(한국어과정 3)급학생이, 금상은 왕우우(한국어과정 5)급학생이, 은상은 코지(한국어과정 5)급학생과 르르날라이(영어영문 2)학생이, 동상은 이영(한국어과정 5)급학생과 부렘스(경영 1)학생과 공개리(한국어과정 5)급학생이, 인기상은 장곤(한국어과정 1)급학생이 수상했다.<관련사진 좌측>

등 정 란

김상봉(경제학과)교수
김 교수는 오는 11월 23일 DLC에서 개최되는 한국신용카드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다. 또한 11월에는 『신용정보의 이해와 활용』(지필미디어)을 출간할 예정이다.

2012학년도 수시 1차 평균 22.37:1 경쟁률 기록

2012학년도 수시 1차 모집에 총 1만 6천 864명이 응시했고 경쟁률은 22.37:1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해 1만 5천 473명이 응시한 21.58:1의 경쟁률보다 다소 상승한 수치이다.

전형별로는 446명을 모집한 ▲전공적성우수자 전형에 가장 많은 인원인 1만 2천 649명이 지원해 28.36: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46명을 모집한 ▲실기우수자 전형에는 2천 391명이 지원해 51.98: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밖에도 ▲지역인재육성 전형은 3.45:1, ▲농어촌학생 전형은 9.14:1 등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성화(전문계)고졸재직자 전형은 0.32: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대

해 최윤석(입학기획팀)팀원은 “중앙대, 건국대 같은 선발대학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이 전형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다.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은 전국적으로 2010년도에 새로 생긴 전형이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미흡하다. 미달률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적성우수자 전형에는 경영학부(주주간)의 경쟁률이 47.80:1로 가장 높았다. 실기우수자 전형에서는 미디어디자인컨텐츠학부의 제품디자인과가 6명 모집에 540명이 응시해 90:1의 경쟁률을 보이며 지난해 시각영상디자인과가 기록한 60.44:1의 경쟁률을 경신했다.

올해 전공적성검사는 출제영역과 점수 배점에서 변화가 있었다. 언어적성 영역은 고교교과형 문제의 비중을 80~90%로 올리며 수능형문제의 비중을 키웠다. 수리적성 영역에서는 단과대학의 인문·자연 계열 구분을 없애고 수리 가형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다. 또한 단과대별로는 영역별 문항 배정의 비중을 달리하였다. 이번 수시 1차 합격자는 11월 3일 발표된다.

한편, 10월 31일 대외협력팀은 우리학교에 지원한 인건 50개 고교의 학생들에게 비타민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지영 기자 guiyomee@hansung.ac.kr

MS 사 윈도우폰 캠퍼스 투어

오는 11월 3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캠퍼스 투어 및 세미나가 열린다.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운동장에 윈도우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캠퍼스 투어 차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투어 차량에서 윈도우폰 용 어플을 시연해 볼 수도 있다. 시연용 어플은 여름방학동안 우리학교 앱 창작터의 윈도우폰 앱 개발 과정을 수강한 학생들이 개발한 것들이다.

이날 시연될 어플은 이세호(멀티 4) 학생의 ‘accountbook’ (간단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 가계부)과 광

희진(컴공 4)학생의 이미지 편집 앱 ‘ScanHelper’ 등 앱 창작터에서 개발된 총 14개의 앱이다.

한편 오후 1시~5시까지 소강당에서 세미나가 열린다. 강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실무자와 ‘2011 이매진’ 수상자가 참석한다. 세미나의 주제는 ‘키넥트와 X-Box Live를 통해 본 윈도우폰 7.5계업전력’, ‘이매진 2011 윈도우폰 분 야 월드컵이널리스트 작품 소개’, ‘마이크로소프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다.

오지영 기자 guiyomee@hansung.ac.kr

2012 학생회 선거 공고 시작돼

2012년도 학생회 선거가 시작됐다. 현재 후보 등록 공고가 나온 단위는 지식정보학부, 행정학과, 부동산학과이다.

지식정보학부의 29대 정·부학생회장 후보등록은 1일까지이다. 선거 유세는 2일부터 8일까지 모두 7일이며, 9일과 10일 양일간 투표를 한다. 필요한 첨부서류는 재학생증서와 지식정보학부 학생 5% 이상의 추천명부이다.

행정학과는 오는 4일 36대 정·부 학생회장 후보등록을 마친다. 유세기간은 7일부터 16일까지이며, 후보등록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도 있다. 투표일은 17~18일이고 후보 등록

시 재학생증서와 행정학과 학생 50인 이상의 추천명부를 첨부해야 한다.

부동산학과는 14대 정·부학생회장 후보등록을 11월 4일 마감하며 선거 유세 기간은 7일부터 11일까지이다. 선거는 17일 하루동안 치러진다. 후보등록을 위해서는 재학생증서와 부동산학과 학생 10% 이상의 추천명단이 필요하다.

정학생회장 후보등록은 4학기 이상 이수자이거나 또는 이수예정자만 할 수 있다. 부학생회장은 2학기 이상 이수자 혹은 이수예정자여야 한다. 후보등록 자격요건은 세 학과 모두 공통이다.

오지영 기자 guiyomee@hansung.ac.kr



신명나는 판소리! 얼쑤~

오지영 기자 guiyomee@hansung.ac.kr

2011년도 제6회 한성인 글쓰기 대회

“너랑게 사고하라! 너를 표현하라!”

- 대회 내용
- 대상 : 한성대학교 재학생
 - 목적 :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력 확장 및 글쓰기 능력 향상
 - 일시 : 2011년 11월 10일 (목) 오후 1시 30분~3시 30분
* 실제 글쓰기 시간 90분
 - 장소 : 낙산관 대강당
 - 문제출제 : 대회 당일 공지
 - 심사일정 : 예심 - 1차 2011년 11월 11일(금) ~ 11월 15일(화)
2차 2011년 11월 13일(수) ~ 11월 18일(금)
본심 - 2011년 11월 21일(월) ~ 11월 23일(수)

- 신청 및 시상
- 신청 기간 : 11월 1일 (월) ~ 11월 9일 (수) 오전 9시 ~ 오후 8시
(단, 11월 10일(수)은 오후 9시까지 방문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1) 사고와 표현 강의 시간에 담당 교수님께 신청
2) 사고와 표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신청
3) 사고와 표현 연구실 방문 신청
 - 준비 사항 : 학생증(신분증), 필기도구
 - 시상 내역 및 상금 : ◆ 최우수상 : 1명 - 상금 50만원
◆ 우수상 : 4명 - 상금 20만원
◆ 가작 : 11명 - 상금 5만원
* 수상자 발표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유의 사항 : 1) 대회 시간과 수업 시간이 겹칠 경우 출석 협조문 발급 가능
2) 참가자에게는 대회 당일 소정의 기념품 증정

* 문의 : 사고와 표현 연구실(연구동 B101, 02-760-4354), 이메일(writing@hansung.ac.kr), 사고와 표현 홈페이지(http://writingcenter.hansung.ac.kr) 자유게시판

주최 : 언어교육원(사고와 표현)



대학생 성폭력에 상아탑이 찌든다

부지불식간에 가해자 됐다면 즉시 사과부터 해야

최근 대학생들의 잇따른 성폭력 피해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5월, 경기도의 한 펜션으로 엠티를 떠난 고려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성추행 외에도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동영상 촬영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평소 피해자의 사생활이 문란했는지'를 묻는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를 돌리는 등 반성의 기회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네티즌들은 가해학생의 출교를 촉구했고, 그들은 결국 학교에서 출교조치를 받았다.

한편 고대 성추행 사건이 논란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건국대 학생 성폭력 사건이 터지면서 또다시 파문이 일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조사 과정에서 건국대 학생 이씨는 동기 조씨의 성폭행 의도를 알고도 피해여성과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고백했다.

이후 피해자는 조씨의 간곡한 부탁으로 조씨와 합의했다. 하지만 얼마 뒤 그녀는 형사법에 의거, 공범인 이씨의 고소도 함께 취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인터넷에 사건의 전말과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되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건국대 학생 성폭력 사건은 제2의 고대 의대 성추행 사건으로 불리며 네티즌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우리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상담소(이하 양성평등상



▲한 시민단체가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고대 학생의 출교처분을 촉구하는 모습

담소'가 발행한 2011 양성평등연구집에 따르면 우리학교 학생 1천173명 중 10.9%는 성폭력을 당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몇 년 전 모 학생회 간부가 성폭력 문제로 물의를 빚고 사퇴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학교도 이러한 성폭력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성폭력은 성적인 신체 폭력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굴욕감과 수치심, 모욕감을 주는 모든 성적 언동까지 포함한다.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면 상황에 따라 성희롱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학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의 유형으로는 술자리 등에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공적인 자리에서 특정 성을 무시하는 발언 등이 있다.

지성의 전당이라 불리는 대학에서

왜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홍성미(양성평등상담소)전 문위원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며 다. 하지만 도덕적 가치에 대한 교육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능과 도덕적 인식이 함께 성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만약 자신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됐다면 우선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면 구두나 서면으로 항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혼자 대처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이나 연락해 도움을 청해야 한다.

교내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우라넷 양성평등상담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강간의 피해를 당

했다면 찌지 말고 신속히 가까운 병원으로 향하고 옷가지와 증거물은 보관해야 한다.

때때로 성폭력 피해자가 모욕과 수치심에 사건을 덮고 넘어가려는 경우가 있다. 홍성미 전문위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신고로 인해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면 사회가 부정적 낙인을 찍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에 있어 권력적 약자라면 자신에게 돌아올 보복과 불이익 때문에 불안해한다.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사회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후시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되었다면 피해자가 자책감을 갖지 않도록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어야 한다.

양성평등연구집에 따르면 학내 성폭력 피해 시 양성평등 상담소에 문의 및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596명의 학생 중 42.1%가 '신상비밀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성폭력 상담소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상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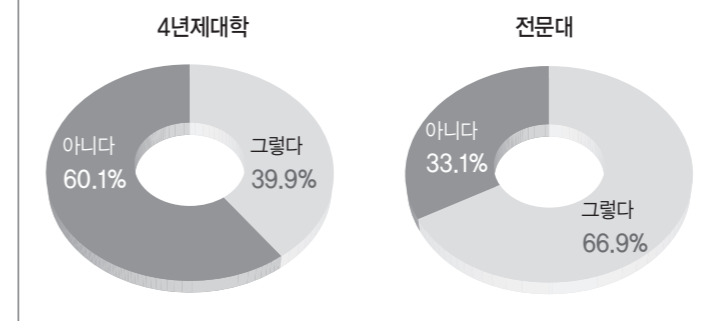
만약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자신의 언행을 불쾌하게 느껴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변명을 하기보다는 즉각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또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대방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고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오영미 기자 guiyomee@hansung.ac.kr

통계로 본 대학사회

4년제 대학생과 전문대생, 서로 부러워

4년제 혹은 전문대에서 진학한 것을 후회해 본적이 있습니까?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국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459명과 전문대학생 25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국내 4년제 대학생의 39.9%가 전문대가 아닌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4년제 대학 진학을 후회하는 것은 취업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85.5%의 학생들이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상대적으로 취업이 쉬운 전문대 진학을 생각해봤다'고 대답했다.

전문대에 진학한다면 어떤 학과에 가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별에 따라 달랐다. 남학생의 경우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기계공학' (17.6%)였다. 다음으로 '사회복지학' (8.8%), '컴퓨터공학'·'건축학' (7.7%)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5.5%가 '취업이 잘 되는 학과'면 어느 학과든지 상관없다고 대답했다. 반면 여학생은 '간호학' (25.0%)의 지지율이 월등히 높

았다. 특히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취업이 잘 되는 학과'라는 응답이 17.4%로 더욱 많아, 남학생에 비해 취업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아교육' (8.7%), '관광학' (7.6%), '치기공과' (5.4%) 등이 순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러한 4년제 대학생들의 생각과는 달리 전문대생 중, 4년제가 아닌 전문대에 진학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66.9%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 중 69.6%가 전문대 진학을 후회하는 이유로 '취업문제'를 들어, 4년제 대학생들과 '같은면서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

4년제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 전공으로 삼고 싶은 학과에 대해 남학생들은 '기계공학' (21.4%), '경영학' (17.1%), '호텔관광학과' (14.3%), '중어중문학과' (11.4%), '전자과' (8.6%) 등이 인기를 얻었다. 여학생의 경우 '간호학과'

(12.2%), '컴퓨터공학과' (11.2%), '신문방송학과' (10.2%), '심리학과' (9.2%), '회계학과' (9.2%), '경영학과' (7.1%) 순이었다. 특히 간호학과는 전문대학에도 많은 학교 입에도 불구하고 역시 1위에 꼽혔는데, 이는 학생들이 단순히 취업 여부 외에도 취업의 질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모 전문대학 보석감정학과 졸업생은 "학과 특성상 취업이 잘 되는 편이긴 하지만, 취업한 친구들을 보면 초봉이 월 100만 원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력이 쌓이면 연봉이 올라가지만 그때까지 버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는 친구들이 많다."며 전문대생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는 "현재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영어를 전공하지 않아 월급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1년간 유학을 다녀온 경험도 있어 영어로 작용한 덕분에 취업에는 별 무리가 없었다."며 "자신이 가진 능력을 잘 살린다면 취업문제에 전공이나 대학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요즘은 출신 대학보다 능력이 중요한 것 같다. 학교 선배들의 경우, 초봉은 적지만 전공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여 4년제 출신보다 훨씬 잘나가는 선배들도 많다. 학교나 학과에 상관없이 취업은 본인인 자기 나름"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혜늘 기자 blue dreams@hansung.ac.kr

■ 타대학 엿보기-한양대 ERICA

신입생 맞춤 캠퍼스, 한양대 ERICA

학교에 막 입학한 새내기들이 혼자서 학교에 잘 적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학교가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제도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때문에 각 대학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 '새내기 새로 배움터' 프로그램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한양대 ERICA캠퍼스(안산)에서는 2006년부터 신입생들을 위한 색다른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모든 신입생들에게 1학기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양대 ERICA캠퍼스 김성수(총의인재교육원)교장은 "1학년 학생 전체를 반으로 나누어 받은 1학기에, 받은 2학기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다"고 운영 방식을 설명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신입생들은 단순히 기숙사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 시간에 인성 및 기본 소양 수업과 외국어 수업을 의무적으로 수강한다. 이 수업에는 학부 재학생들로 이뤄진 멘토 1인이 10명의 신입생을 맡아 관리하고 도움을 주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학교에서 특별히 제작한 워크북을 교재로 삼아 총 5번의 교육을 받는다.

김성수 교장은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대학 생활에서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MBTI검사와 직업선호도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신입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진로와 적성을 미리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기숙사 운영 방식 또한 특이하다. 각각의 방에는 2명의 학생들이 지내게 되는데, 룸메이트는 반드시 타과 학생으로 정해진다. 또한 기숙사의 학생들은 10명씩 조를 짜서 학기말에 공연이나 작품 전시를 해야 한다. 이 역시 다른 과의 학생들과 팀을 이뤄야 한다.

이에 대해 김성수 교장은 "모든 방의 룸메이트를 타과 학생으로 정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다른 단과대학과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자신의 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과 소통할 수밖 MBTI검사와 직업선호도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신입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진로와 적성을 미리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신입생들은 기숙사 프로그램 외에

도 'ERICA 실무인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기업 인사 담당자를 직접 만나 강연을 들어 볼 수 있고, 함께 건설팀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모든 활동이 끝나게 되면, 신입생들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축적된 자료들을 학교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한다. 이렇게 쌓은 정보들을 통해 학생 개인이 쉽게 계획서를 만들 수 있다.

상당히 빠른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한양대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인 편이다.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김성수 교장은 "이 프로그램들은 강의 평가와 함께 평가 되는데,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중 70% 이상의 학생들이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여줬다"고 답변했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대학만평

권연화(애니제움 4)



제13회 한성 교내 영어수필대회

- 대상_ 한성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포함)
- 주제_ 자유
- 형식_ A4 3매 분량 (hwp파일, 글꼴:바탕, 글자크기:10, 줄간격:160%)
- 제출 방법_ 참가지원서 : 직접 제출 (영자신문사 사무실) 원고 : e-mail 제출(jeuk1234@hansung.ac.kr)
- 접수 기간_ 2011년 10월 31일(월) ~ 11월 03일(목)까지
- 상금_ 최우수상- 상장 및 상금 30만원 (1명) 우수상- 상장 및 상금 15만원 (2명)

- 문의_ 한성대학교 영자신문사 사무실 (별관3층) ☎ (02)760-4195, 편집국장 010-3292-4678

- * 타 영어수필대회 참가자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 참가지원서 양식은 한성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시상자는 참가자의 수와 작품의 질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 *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주최 : Hansung Today / 후원 : 한성프레스센터

별난 시민들, 여의도를 점령하라

반 월가 시위 국내에도 상륙하다

미국에서 시작된 'Occupy Wall Street(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은 82개국 1천500여 개 도시로 번졌고, 마침내 '여의도를 점령하라'라는 구호로 국내에도 상륙했다.

반 월가 시위는 월가의 탐욕으로 금융 위기가 발발해 높은 실업률과 경제 악화란 상황을 일으켰음에도, 월가의 최고 경영자들은 수백만 달러의 퇴직금을 챙겨 떠나는 행태에 대해 미국 시민들이 분노하며 발생했다. 그리고 이런 시위는 곧 '상위 1%가 부의 50%를 가지고 간다'며 99%를 자처하는 시민들이 양극화 문제를 제기하며 더욱 확산되었다.

이선미(참여연대)간사는 "월가에서 시작된 시위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반 월가 시위는 99%의 사람들이 양극화, 부정부패 등을 일으킨 금융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자리"라고 말했다.

국내의 반 월가 시위는 금융권이 높은 수수료로 막대한 이익을 벌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축은행 사태 등의 부정부패를 일으키자 이에 시민들이 분노하여 일어나게 됐다. 국내에서는 지난 15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처음으로 반 월가 시위가 시작되었다. 금융 소비자협회,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의 시민단체와 저축은행 피해자, 대학생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100여 명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여의도를 점령하라'며 금융 시스템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태호(성공회대학교)학생은 "경제 개편으로 인해 외국 자본이 무분별하



▲ 지난 10월 15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외국 유학생들이 반 월가 시위를 하는 모습이다.

양극화 문제 해결 높은 수수료 인하 저축은행 사태 보상

게 들어오며 국내 기업들의 주인이 되었다"며 "그러면서 기업들이 직원이나 소비자가 아닌 대주주만을 위해 구조조정과 배당 등을 하고 있어, 사회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장하식(투기자본감시센터)위원장은 "지난 시간 동안 금융자본시스템은 1%의 부자들을 위한 구조로, 1%를 위해 99%가 고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연간 14조의 이익을 남기는 금융자본은 수수료를 인하하며

금융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의도 점령 시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강창욱(자유청년연합)회원은 "월가의 시위는 미국 정부의 세입이 투입되어 금융기관이 혜택을 받았지만, 그에 따른 사회에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린 시위이다. 또한 월가의 시위는 개인들이 자발적인 대주주만을 위해 구조조정과 배당 등을 하고 있어, 사회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박덕배(현대경제연구원)전문연구위원은 "이번 시위는 분배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표출된 것이다"며 "이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공정 사회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여의도 점령 시위를 평가했다. 이어 그는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성장만을 신봉해왔지만, 이제는 분배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분배가 어느 정도 이뤄져야지만 다음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여의도 점령 시위 등과 같이 금융권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되자, 은행들은 수수료 인하와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미림(한신대학교)학생은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는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 공부와 스펙 쌓기로 바쁘더라도 반나절 정도의 시간을 내 사회에 관심을 갖고 발언을 위해 움직여 주었으면 좋겠다."며 학생들의 참여를 요구했다.

그린 액티브

사막화되는 지구, 파괴에서 풀이로!

지난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경남 창원에서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총회'가 열렸다.

'소중한 대지, 생명의 땅(Care for land, Land for life)'를 주제로 한 이 행사에는 각국의 정부대표와 국제기구와 NGO 등 지구촌 곳곳에서 3천여 명이 모여 사막화 방지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사막화(desertization/desertification)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져 기후가 건조해지면서 사막이 확대되는 현상이다.

"엄마, 우리는 왜 매일 이사 다녀?"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인 대지가 고통받는단다." 유목민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다.

아름다운 자연을 후세에게 물려줄 것은 지혜로운 조상을 먹이다. 하지만 수백 년을 지켜온 초원도 인구증가, 현대 문명의 유입, 도시화, 산업화, 기후변화의 칼날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적은 강수량만으로도 생태계를 유지해가던 초원생태계의 균형이 깨지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초원은 급속히 사막으로 변해갔고, 극심한 황사현상이 나타났다. 장기간에 걸친 가뭄과 같은 자연적인 기후요인도 한 몫을 했지만 그보다는 부적절한 인간 활동이 더 큰 원인이다.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물과 식량을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다. 그렇게 이들은 도시의 빈민이 되고 도시팽창은 사막화를 더 가속시켰다. 한번 만들어진 악순환의 고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사막화가 단순히 자연재난이 아니라 인위적 재난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1994년에는 세계 각국이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을 채택하였고, 협약이 채택된 6월 17일은 '사막방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1999년에 협약에 가입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4개국이 협력하여 문제해결에 나섰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가장 확실한 희망은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다. 쉬운 일부터 단계적으로 함께 행동으로 옮겨보자.

1단계. 지구적으로 생각하기 '사막화가 문제는 문제구나!' 이제 느끼기 시작한 당신이라면! 오지랖을 넓혀 지구적으로 생각하자.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이 소중한 대지를 파괴시킬 수도 희망의 풀씨가 될 수도 있음을 항상 기억하자!

2단계. 댜가 진짜로 해보기 알만큼 아는 당신이라면! 두려움을 버려라. 작은 실천으로도 어머니인 지구, 대지로 부터 얻은 행복을 돌려줄 수 있다.

첫째, 소비할 땀 여러 번 망설이자. 지구를 생각하는 소비자가 되려면 우선 소비를 줄이는 것이 상책! 꼭 필요하다면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물건을 소비하자.

둘째, 수확기를 들고, 가까운 지역의 환경 보호단체를 찾아 자원봉사를 신청하자. 시작이 반이다.

셋째, 환경보전과 사막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환경단체의 회원이 되어 파괴되어 가는 지구에 희망의 풀씨를 보내보자.

3단계. 널리 퍼트리고 알리기 작은 실천의 재미에 푹 빠진 당신이라면! 당신의 경험과 생각을 퍼트려라. 트위터,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자신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가동하자. 당신도 '개념 친구'가 될 수 있다.

글 : 정미경 (사환경교육센터 연구실장)

세상 속 우리

'인권연대' 대학생 인턴 조찬형 · 손윤 씨를 만나다

획일적인 스펙 쌓기에서 벗어나 능동적 행동해야해

인권연대는 군·경찰 등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유린된 인권을 지키기 위해 1999년 설립된 시민단체이다. 조찬형(광운대 영어영문학과)씨는 "원래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취직과 시민단체 인턴 사이에서 고민을 했다. 평소 인권에 대해 관심이 가졌지, 실질적인 활동은 해본 적이 없었다"며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인권연대를 택했다."

고 인턴십을 지원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인턴십 대학생들은 대학생 세미나, 재소자를 위한 인문학 강의 등 인권연대의 전반적 활동에 참여하고 참가 후에는 모든 일을 기사로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찬형씨는 "인턴은 사무 보조를 비롯해 각종 모임에 참석한다. 이후의 기사 작성은 경험을 쌓기 위한 공부"라고 말했다.

손윤(경희대 태권도학과)씨는 "대학생 세미나에서는 인권에 대한 책을 읽고 토론을 한다. 또래의 학생들이 모여 인권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이 의미 있는 것 같다. 뒤돌아서는 전문가의 조언도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대학생들을 포함한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소모임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조찬형씨는 "시민단체 인턴은 기

업에서 근무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손윤씨는 이에 덧붙여 "사회를 보는 시야가 넓어지게 된다. 정말 관심이 많지 않은 이상, 대학생이 시민단체 일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인턴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다"며 "그동안 내가 가졌던 편견에 대해 반성한다. 이제야 깨어있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동조했다.

조찬형씨는 인권연대의 인턴을 통해 장래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그는 "인턴을 하기 전에는 생각이 없었지만, 현재는 인권운동가로 활동할 의향이 있다. 자아 반성에서 시작한 일이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깨우쳐주고 있다. 시민단체에 워낙 인력이 부족한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권리이지만, 그것을 늘 체감하고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조찬형씨는 "인권활동이 엄청난 대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학생들이 부담을 갖

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손윤씨는 "투표를 통해 인권 보호에 앞장설 대표자를 뽑는 것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예시를 들었다.

덧붙여 손윤씨는 "대학생은 취업과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한참 복잡할 시기이다. 사실상 토익이 기업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토익을 공부한다. 배움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획일적인 스펙 쌓기에서 벗어나, '왜 이걸 배우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찬형씨는 "지금 내 행보에 대해 항상 의문을 갖고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대학생들이 시민사회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기 때문에 인권과 관련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하며 "꼭 시민단체를 통하지 않더라도 책을 많이 읽어서 간접적 사회 경험을 쌓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지영 기자 guiyomee@hansung.ac.kr

낙산만평

이다영(의생활 1)



제5회 한성사랑영상공모전

생각하는 사람, 사람을 생각하는

주 제: 사람

참가자격: 전국의 대학생 및 고등학생

참가부문: 다큐멘터리 / 비 다큐멘터리

제출기한: 2011년 10월 25일~2011년 11월 6일

시 상 식: 2011년 11월 18일 18:00~

상 금: 최우수상-부문 구분 없이 한 팀 또는 한 명(상금 50만원)
우수상-부문별로 한 팀씩 총 두 팀(상금 20만원)

*문의전화: 한성대학교 방송국 02-760-4148, 010-9788-9864

*메일주소: hbs4184@hanmail.net

*홈페이지: press.hansung.ac.kr

주최: HBS한성대학교 방송국 / **후원:** 한성프레스센터

의 화 정



나도성 교수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한성대, 스몰자이언츠로의 도약을 기대한다

법정스님은 인생을 일기일회로 정리했다. 인생이란 만남의 결과가 누적된 것이다. 우리는 만남의 순간 순간을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한성인 모두는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서울의 중심에 함께 모였다.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 이상의 만남이다. 이 만남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필자는 공직에서 30여년을 보냈다. 한성대에는 지식서비스&컨설팅연구원장으로 4여년 전 동참했다. 내가 과문했는지 서울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그 존재를 잘 몰랐다. 브랜드가 별로였다는 얘기가. 최근 들어서 한성대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이다. 상상력과 열정이 숨 쉬는 대학, 서울 중심의 작지만 강한대학, 학생 성공을 최우선하는 대학, 그리고 창업 일드대학이라는 메시지가 확산되고 있다. 한성인 모두 새로운 비전을 향해 전략적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시점이다.

최근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개도국 독재

체제는 자스민 혁명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다. 무한 질주할 것 같았던 신자유주의 체제는 그 임계점에 봉착했다. 자본의 무한 폭주에 따라 양극화가 극한상황으로 치달았다. 그 근저에는 메가 비즈니스 커넥션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민간이든 공기업이든 정부든 정치권이든 자신의 덩치를 키우고 이들 상호간의 이익에 기반한 연계 고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창조적 혁신과 합리적 위험을 감수하려는 다수의 대중과 중소기업들은 설자리를 잃고 있다. 좌절할 소시민들 중심으로 월가를 점령하려는 분노가 선진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 한국도 이미 안철수 신드롬이 확산되었다. 기존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 논리에 반기를 들었다. 젊은이들에게 더 이상 희망을 주지 못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었다. 미국보다 더 심각한 양극화에 직면했다. 재벌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승승장구와 중소기업의 파멸화가 심화되

었다. 대학도 SKY를 중심으로 한 일류만이 행세하고 대다수는 몰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취업도 화려한 대기업이나 안정적 공공 부문만이 우선시되고 있다. 현 상황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 변화가 필요하다.

한성대는 서울중심에 위치한 작지만 강한 대학을 지향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삼성, LG와 같은 재벌들과 직접 경쟁하기 어렵듯, 한성대도 SKY대학의 경쟁모델로는 어렵다. 독특한 니치마켓을 추구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특성화이다. 한성대가 그 역사, 위치, 역량 등을 고려해 선택한 특성화는 지속적인 우고 합리적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이 정치는 상상력과 열정에 잘 투영되어 있다. 상상력과 열정은 하나의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

한성대인의 혼창통의 정신이 함께하여 창업 일드대학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대학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 시스템 구축, 산학연관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 그리고 한성의 젊은 패기가 함께해야 한다. 창업의 궁극적 목표는 스몰자이언츠이다. 단순히 취업이 어려워, 호구지책으로, 남들이 하니가, 하는 식의 창업이 아니다. 자신의 독특한 역량을 바탕으로 작지만 강한기업으로 우뚝 서야 한다. 독일식 히든챔피언이 그것이다.

창업일드대학은 학생이 성공하는 대학 모델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한성대의 비전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모으고, 그들의 욕구를 중심으로 대학운영을 하며,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창업과 취업이 연계되도록 온 힘을 모아야 한다. 학생들은 한성대의 일과 오메가라는 자존심으로 일기일회의 족적을 남겨야 한다. 특히, 한성대 동문들과의 개방형 네트워크를 확산하여 동문과 함께 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해야 할 것이다.

기자가 만난 사람

최우수동아리의 영예는 클래식 선율에서부터

클래식기타동아리 한음 회장 신아영(경영 2)학생을 만나다

통기타와는 뭔가 다른 느낌의 클래식 기타 선율. 이 부드러운 선율의 매력을 가을 정기공연에서, 그리고 학내의 각종 행사에서 연주하는 이들이 있다. 다름 아닌 우리 학교 클래식기타동아리 한음이다. 클래식기타 선율의 중심에 있는 한음 회장 신아영(경영 2)학생을 만나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한음 회원 중 한 명이 '서울메트로 대학문화축제'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한음은 지난 1학기 동아리평가에서 최우수동아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평가항목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진 동아리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최우수동아리에 등극한 것에 대해 신아영 학생은 "한 학기 동안 운영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최우수동아리 선정으로 나온 것 같아 기분이 매우 좋다. 다음 학기 동아리 활동을 할 때에도

힘이 많이 될 것 같다."며 소감을 이야기했다. 최우수동아리까지 오르게 되었던 데에는 한음만의 비결이 있었다. 학내 활동뿐 아니라 언뜻 보면 뻔뻔해 보이는 외부 활동까지 모두 소화해냈던 것이다. 신아영 학생은 "동아리 활동 중에서도 외부 활동이 접수가 높은 덕분에 동아리 평가 성적이 잘 나오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한음은 대외에 우리를 알릴 기회가 있거나 외부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임했다. '서울메트로 대학문화축제'에 참여하기도 했고, 성북경찰서 행사 때 초청받아 연주를 하기도 했다."며 한음의 활발한 활동을 강조했다.

한음은 올해 9월 정기공연과 현무제 공연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학내외를 막론하고 클래식기타 선율을 청중을 사로잡는 한음에 대해 신아영 학생은 "한음은 탄생한지 얼마 되지 않은 동아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다른 대학 클래식기타 동아리만큼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회원들의 동아리 생활은 어떨까. 신아영 학생은 "여름방학 중에는 9월에 있을

가을 정기공연을 위해 일주일에 3회 정도 모여 연습을 한다. 겨울방학 중에는 다음 학기 3월에 있을 신입생 환영 연주회를 위한 연습을 한다. 또 학기 중에는 신입회원 기타 레슨, '작은연주회' 등을 한다."며 "동아리이다 보니 친목을 위해 소풍과 MT도 간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의 세부 계획은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회의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클래식기타를 치고 싶지만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이들에게 한음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신아영 학생은 "(동방 한쪽을 가리키며) 보시다시피 '동방 기타'라고 한음에서 회원들에게 공짜로 빌려주는 기타들이 많이 있다. 지금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타들은 모두 개인적으로 구매한 것이고, 계속 동방 기타를 쓰며 레슨을 받고 연주회에 참여해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낙원상가 등 악기 전문 매장에서 클래식기타를 구입할 수는 있지만, 의외로 그쪽 판매자들 사이에도 클래식기타 관련 정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 처음에는 무작정 기타를 사려고 하지 말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동방 기타를 쓸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혜련 기자 celreich@hansung.ac.kr

|사설|

'낙산의 메아리' 언어 유감

'낙산의 메아리'(이하 낙메)는 한성대학교의 공식 자유게시판이다. 교수, 교직원, 학생 등 구성원이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다른 이의 생각에 반대하는 의견도 낼 수 있다. 최고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다운 얼굴을 보이는 곳이다. 대부분의 대학은 다 우리의 낙메같은 온라인 토론장이 있어, 그곳에 들어가 보면 그 대학 구성원의 생각이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 중학교의 홈페이지에도 대다수 자유게시판이 있고, 간혹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입장과 열람이 가능한 곳이 있어 재미있는 글을 읽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형제, 친척,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토론방은 그 학교의 분위기와 현황을 파악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 며칠 동안 낙메는 등록금 환급 문제로 그야말로 북새통이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기탄없이 개진하는 장터가 되었다. 대다수 학생들은 다소의 흥분을 감추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논리까지 갖춘 수려한 글로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학교 일에 관여의 입장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학생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몇몇 학생들의 과도한 언어 표현이 많은 구성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토론의 대상이 된 대학총장은 학교의 가장 어른이다. 물론 나이도 많아서 학생들의 아버지뻘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대학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총장의 논리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떠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그분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낙메에서는 유감스럽게도, '당신'이라는 호칭에서부터 '빨가벗겨 운동장을 끌고 다녀야 한다'는 등, 차마 제자의 언어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이 일부 등장하였다. 어느 대학, 아니 중·고등학교 게시판에서도 보기 힘든 언어의 저질스러움이 아닐 수 없다. 부모님께서 자전거를 사주시겠다는 약속을 어떤 이유에서든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과연 그 학생들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할 지가 무척 궁금하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 당사자가 나와 상관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보호해주려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내 대학의 어른이자 스승을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시정잡배의 언어로 폭력을 가할 수 있는 것인가.

게다가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폭력적인 언어는 토론의 본질을 해친다. 화자의 주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언어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그의 의도는 이미 많이 훼손되어 버린다. 그가 전달하려는 의미가 없어지고, 불쾌만 오해만 남게 된다. 20만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서 벗어나, 감정의 여과 없는 전달은 전 구성원의 수준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특히 외부인이 그 글을 볼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를 판단할까가 걱정스럽다.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자수첩

언론은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건국대 신문사의 이동찬 편집장이 해임됐다.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이나 발행 중지 사태가 벌어지더니, 편집국장 해임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건국대 측은 이 국장의 해임 사유를 '건국대 성폭행 사건'에 대한 오보에 책임을 묻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건대신문 기자들은 편집권 분쟁에서 비롯한 보복성 해임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건대신문의 불협화음은 올해 초부터 계속되어왔다. 건대신문 편집국은 당초 학생 총회 무산 기사가 1면에 실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 '등록금 문제는 시기성이 떨어진다'며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대립이 극심했다. 지난 6월에는 하나의 사건에 상반된 견해를 펼치는 내용의 사설이 나란히 실리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서울대, 숙명여대, 연세대 등 8개 학보사들의 연합조직인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는 "정약을 금지 못할 탄압이다. 건대신문 사태는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렇듯 학교에 비판적인 기사에 대한 건국대 측의 사전검열은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이 국장의 해임 시기와 편집국이 주간교수의 퇴진을 요구하던 때가 맞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같은 기사의 입장에서 상당히 씩씩한 기분이 든다.

학보에 실릴 기사를 정하는 편집회에 학교의 간섭을 받고있는 학보사는 생각보다 많다. 다행히 기자는 아직까지 아이템 결정에 있어 학교와 크게 마찰을 빚은 적은 없다. 하지만 취재과정에서 맞 다툼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만약 이것이 학생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될 것이다.

물론 건대신문에 오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국장이 기자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잘못이 있었다면 교육과 지도로 가르쳐야지, 해임과 같은 극단적인 카드를 꺼낼 일이 아니다. 언론이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면 그 대상은 쓴소리도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당장의 허물 감추기에만 급급할 일이 아니다. 언론사 활동의 결과물인 학보를 대외홍보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현재 건대신문은 학생기자의 편집권을 침해하는 'KU미디어센터 규정' 개정과 이 국장의 해임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오지영 기자 guiyomee@hansung.ac.kr

가로세로

10x10 grid for a crossword puzzle with numbers 1-10 in various cells.

정답자 발표
원색(애니제품 1) 010-XXXX-5139
한솔기(영어영문 1) 010-XXXX-6293

학과(학년):
이름:
연락처:

이번 신문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기사는 무엇인가요? 그 기사의 소감을 적어주세요.

가로 세로

- 1. 한자로 창작된 시, 중국의 것뿐만 아니라 주변 국의 한자문화권에서 한자로 기록된 시까지 모두 포함한다.
2. 여러 고성능 기능이 추가된 학생증, 우리학교 총학생회도 도입 고려중이다. (기사첨조)
3. 2명 이상의 다수인이 모여서 어떤 인간을 의논·교섭하는 행위.
4. 전자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음악, 원래 미국 MTV의 프로그램 이름이었다. (기사첨조)
5. 배 사이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부드러운 조직, 대부분의 척형류와 백혈구가 여기서 만들어진다.
6. 마음을 다잡지 아니하고 풀어 놓아 버림. 'O'였다가 당했다.
7.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영역, 문학, 사학, 철학이 대표적이다.
8. 시의 서양 고대 국가 중 하나. O에서 출발하여 서유럽 대부분과 지중해 전역을 차지하는 OO제국이 되었다.
9.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구하고 건강법을 모색하는 학문. 예를 들어 임상OO 등이 있다.
10. 지난 10월 25일 우리학교 명사초청강연회에 초청된 박경철 원장의 별명. (기사첨조)
11. 고대 그리스의 유력한 도시국가 중 하나. 여러 면에서 아테네와 대비되었다.
12.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생활 현상을 유지하여 나가는 물체. 반댓말로는 무OO이 있다.
13. '감히 하려고 마음을 먹지 못할'을 뜻하는 한자성어.
14. 극동아시아에서 동유럽에 걸쳐 있는 나라. OO정교가 이 나라의 주요 종교이다.
15. 20세기 프랑스의 정치가. 전후 프랑스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역, 문학, 사학, 철학이 대표적이다.

정답자에 한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지난해 정답자는 연락 후에 신문사로 와서 상품권을 받아주세요. 문의 : 한성대신문사(02-760-4186)

한줄덧글

- Q. 내가 가장 인상깊게 읽은 책은?
- [연금술사-파울로 코엘료]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의문들을 신비롭지만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 최명호(행정 3)
- [청소부 밥-레이 힐버트] 쉽게 읽을 수 있고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김승민(경제 3)
- [인생수업-데이비드 케슬러] 사소한 일도 행복으로 느낄 수 있고, 큰 슬픔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 수 있게 해주는 의미를 부여해줬기 때문입니다. 박아름(무역 3)
- [화폐전쟁-송홍빙] 당연시 여겨왔던 세계금융권의 비열함과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읽는 내내 마치 머리를 맞은 느낌. 현실이라 더 슬프다. 추대호(무역 2)
- [생각 버리기 연습-코이케 류노스케] 변화를 통해, 나 자신을 끝없이 괴롭히는 집념을 떨쳐버리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현수(행정 2)
-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이지성] 오랜만에 자신감이 생기게 해준 책임과 동시에 열심히 살게 동기부여가 된 책이다. 노송혜(영어영문 1)
- [아웃 라이어-말콤 글래드웰] 1만 시간의 법칙이란 신기한 법칙 들어 보셨나요?
이동철(경영 3)
소혜정(지정 3)
- [중국의 붉은 별-에드거 스노우] 아직까지 레드 캠프를, 반공의 유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혁명과 이상의 본연의 가치에 대해 일깨움을 줄 수 있는 고전입니다. 김미래(역사문화 4)

이번 호 당첨자는 최명호(행정 3), 박아름(무역 3), 노송혜(영어영문 1) 학생입니다. 당첨자에게는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당첨자는 연락 후에 신문사로 와서 문화상품권을 받아주세요.

연세대 한글백일장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현순길(한국어과정 고급반)학생의 수상작입니다.

바라봄

현순길

따뜻한 바람이 불어온다
아지랑이를 타고 다가오네
진달래꽃이 활짝 피었구나
봄이 오나 보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
바다 향기를 타고 다가오네
해바라기꽃 활짝 피었구나
여름이 오나 보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온다
웃음꽃 타고 다가오네
그리움이 활짝 피었구나
사랑이 오나 보다

차디찬 바람이 불어온다
하얀 눈꽃을 타고 다가오네
동백꽃이 활짝 피었구나
겨울이 오나 보다

행복한 바람이 불어온다
웃음꽃 타고 다가오네
그리움이 활짝 피었구나
사랑이 오나 보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서사성

▲오디션 프로그램의 정체성

방송가는 지금 그야말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전성시대다. 지난해 큰 화제를 모았던 엠넷의 '슈퍼스타K(이하 슈스케)' 이후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은 케이블 채널을 넘어 지상파 3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은 생존자들은 이미 스타덤에 올랐다.

이러한 현상은, '리얼리티'라는 장르의 불명확성, 선정성, 진정성 여부, 서구 포맷의 표절이라는 기존의 비판과 우리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오락성을 지향하는 '오디션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독립적인 인기 장르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처럼 우리 생활에 즐거움을 주는 하나의 문화 요소로 자리 잡은 결정적인 요인은 시청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대중성과 실력을 겸비한 진정한 의미의 스타가 배출되리라는 기대감에 기인한다. 이러한 기대가 공중사회를 지향하는 현대의 정서와 맞아 떨어진 까닭에 '슈스케'의 대국민 문자 투표 참여자는 100만 명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오디션을 통해 가수의 꿈을 이루게 된 허각이나 백정강은 우리의 친근한 이웃에서 스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이들이 꿈과 희망을 얻게 되었으며, 그들의 고난 극복과정과 아름다운 경쟁의 모습은 우리의 가슴을 울리기도 했다. 또한 율랄라세션의 리더 임은택은 위암 4기 투병중이어서 극한의 고통을 안고 있지만, 그의 몸과 목소리는 삶의 경이로움을 노래하며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

이것은 본선에 진출한 출연자들이 공동 합숙생활을 하고 훈련을 받고 오디션을 준비하는 과정을 집요하게 포착한가, 각각에게 어떤 색깔의 캐릭터가 부여되기도 하고, 그러한 가운데 드라마틱한 개인의 삶이 강하게 부각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에서 적절히 드러난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들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상실감을 되찾기 위해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identification)하며 서사전략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서사에, 다양한 형식의 공연이나 재미를 줄 수 있는 각종 '미션'의 수행을 통한 게임시 서바이벌 모드가 접목되면서 음악을 소재로 한 서바이벌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통과예 모티브

리얼(Real) 프로그램은 대체로 출연진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온갖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서사물의 가장 일반적인 구조인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과 유사하다. 출연진들은 PD가 부여한 임무를 부여받고(발단) 이를 수행하다가(전개) 고초를 겪게 되고(위기) 남다른 인내심을 발휘하여(절정) 이를 무사히 수행(결말)해 낸다. 일종의 장애 극복 모티브라고 할 수 있다. '슈스케2'에서 비슷한 개인기를 가지고 있던 장애인과 김지수를 붙여 서바이벌을 진행했던 미션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시간과 공간적 상황에 따라 몇 개의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출연진들은 각각 코너별로 주어진 임무를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해결을 한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속성상 다른 코너와의 관련성보다는 해당 코너가 독자성을 갖고 진행된다. 또한 각 코너는 전체적인 흐름과는 무관하게 특정 사건이나 임무에 대해 과도할 정도로 집중화되어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 또한 판소리와 같은 공연 예술이 연행 현장에서의 흥미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대목의 긴장감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는 '장면의 극대화'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모든 문화가 갖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 구조로 '통과의례'를 들 수 있다. 왕의 탄생을 다룬 고대설화에서부터 할리우드의 수많은 영화, 현대의 TV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서사물은 이 통과의례를 기본 골격으로 삼고 있다.

통과의례의 기본 골격은 평범하거나 결함이 많은 존재가 수많은 장애를 뛰어넘어 새로운 존재가 거듭나는 이야기이며, 변환(transformation)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

시하는 정형화된 실천들이다.

언어문학 이론가에 의하면, 변환은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고정된 구조를 갖는다고 한다. 첫 번째는 경계를 뛰어넘기 이전 단계(pre-liminal stage)인데, 이 단계에서 한 개인은 이전의 환경에서 분리된다. 두 번째 단계(liminal stage)로, 여기서 개인은 난관과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post-liminal stage)에서는 시험을 통과한 개인이 새로운 지위를 갖고 공동체에 재통합된다.

현대판 오디션 리얼리티 쇼는 비록 세부적 디테일에서는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통과의례'라는 기본 이야기 구조에 기초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과외'라는 기본 이야기 구조에 기초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캐릭터 구축

서사물에서의 인물은 작가가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존재이다. 작가는 주제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인물을 허구적으로 형상화한다. 이러한 작가의 노력은 인물의 대사나 심리 묘사 등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로 극적 긴장감과 흥미를 높이기 위해 출연진에게 각 인물 만한 일정한 캐릭터를 부여하고 형상화한다.

'슈스케3'에서 보면, 슈퍼세이브를 거머쥔 율랄라세션, 차도너 김예림과 초식남도 대운의 조합 투개월, 당당하고 리더십 있는 신지수, 넓은 포용력의 크리스티나, 아픈 가정사를 드러냈던 크리스, 밴드 음악으로 확실한 개성을 살린 버스커버스커, 씨름요정 김도현 등 남은 TOP 7은 확실한 캐릭터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출연진은 프로그램 속에서의 역할에 맞게 별명이 붙여졌는데 이는 고의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계속 불리워지면서 프로그램 속의 중요한 캐릭터를 형성하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상황을 주도하는 주인공이 있다는 점이다. 주인공은 출연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때로는 갈등의 한 축이 되면서 사건을 이끌어 간다. 이러한 역할은 고전 서사 장르에서 보이는 영웅의 일상 구조가 변이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영웅의 일상' 구조는 '고귀한 혈통-기이한 탄생-비범한 능력-위기'

기와 고난-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 극복-과업성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리얼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예가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평가자로서의 서술자 설정

음악계의 카리스마만 별칭을 얻은 방식혁이 존재감을 제대로 알린 계기가 바로 '독설'이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독설을 위한 독설은 문제가 되지 않는 명분이 있는 독설은 날카로운 비판 속에 살아있는 촌철살인!

그러자 바로 옆 나그넨 목소리의 심사위원 한 명은 용기를 북돋아주며 그의 장점을 부각시킨다. 마지막 심사위원은 비교적 냉정한 시각으로 지원자를 평가한다. 당락은 보통 이 마지막 심사위원의 선택에 달려있다. 미디어에선 많이 본 오디션 풍경이다. 미

국 FOX의 '아메리칸 아이돌'의 심사위원 사이먼 코웰과 폴라 톱슨, 그리고 랜디 잭슨이 떠오르지 않나.

오디션 프로그램은 PD가 출연진에게 일정한 임무를 부여하고 출연진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 임무를 수행해낸다. 이 과정에서 출연진들 간에 경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평가자의 미션을 통해 드러난다. 엠넷의 '슈스케3'에서 네 번째 본선 무대 현장이 공개되던 날, 톱슨에게 주어진 미션은 '자신 이 주인공을 맡은 뮤지컬드라마의 테마송 부르기'였다는 것도 의도적으로 설정된 결과물 아니던가.

PD는 화면을 설정하거나 자막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의 시·공간적 배경을 설정하고, 출연진의 상황을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출연진 간의 대화나 심리 상태를 자막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소설의 대화와 유사성을 갖는다.

또한 프로그램 중간 중간에는 PD가 직접 자막에 개입하여 사건의 흐름을 이어주기도 하고 출연자나 상황에 대한 논평을 가하기도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과거에 방영했던 장면들을 다시 보여줌으로써 사건의 인과성을 높이기도 한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의 평가자로서의 서술자는 장면의 주제로 판소리에서 아니리를 구사하는 소리꾼의 역할과 유사하다. 판소리는 이야기를 노래로 부른다는 점에서 '구비 서사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소리꾼은 사건 전개에서 빠져나와 청자에게 말을 건네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방법은 자막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시청자들에게 장면의 주제의 존재를 인식시킨다. 이는 시청자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효과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효과들은 장면의 주제에서 철저하게 의도된 것이라는 점에서 판소리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사건 전개에 주체로서 장면에서 발화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들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의 PD는 한 편의 서사물을 창작해 내는 작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PD는 프로그램의 시작과 결말을 알고 있으며 출연진 사이의 갈

등을 적절히 조성해 가면서 사건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전지적 작가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극적 긴장감

오디션 프로그램은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반복과 변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실력이 모자란 참가자는 떨어지거나 하며 탈락자는 퇴장되어야 한다. 또 내 편 네 편이 있어서 경합을 벌인다. 그런데 이 경합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기거나 높은 점수를 얻는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의 순발력이나 개인기가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개의 프로그램은 규칙을 성실히 따라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예상된 결과를 얻는다. 이것은 출연진들 간에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며 주로 연습과정을 통해 갈등과 화해로 나뉘인다.

즉 오디션 프로그램에는 적당량 반복과 변조가 있다. 예정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참가자는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안도감을 느끼는 한편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낭패감을 느낀다. 이 반복과 기대 사이의 긴장감이 적당해야 오디션 프로그램이 재미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가까이 등장인물의 입장이 되어 같이 웃는 것은 그 인물의 유치함, 서사에서 느껴지는 상투성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어찌구무없는 행복한 결말에 행복해 하면서도 현실이 그런 식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현실의 모순 속에서 더 이상 행복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지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행복의 가능성을 긍정하고 싶은 욕구이다. 또한 관습적인 선, 천한 것을 유지하려는 욕구와 그것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 사이에 완충지대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화의 이런 재미와 감동을 도덕적, 미학적 잣대로 너무 재단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천은숙(한국어문학부 강사)

■서평-파워블로거의 지식충전, 감성충전

우리에게 삶은 '울기엔 애매한' 것이다

『울기엔 좀 애매한』/최규석 저 /사계절



박연주 필명 '침출수' 네이버 책 분야 파워블로거 (<http://blog.naver.com/gotazoo3>)

고3, 대학만 가면 방학마다 외국으로 배낭 여행을 가고 미팅을 하고 누가 봐도 예쁘고 맛있는 사람과 연애를 할 거라고 우리는 늘 말했다. 그런 일종의 최면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삶은 그렇게 녹록치 않음을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것이고 배낭여행은 컷팅 방학에는 보다 시급이 높은 알바자리를 찾아 공장이나 마트

를 전전해야 할 것이므로 인해 연애도 쉽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최규석의 『울기엔 좀 애매한』은 바로 이런 10대와 20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가난이 죄악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가난하여 스스로 불가촉 투저라고 칭해야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다. '가난=굶주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20대는 가난해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날의 청춘에게 가난은 그런 것이 아니다. 가난은 먹고 살기 위해 꿈을 포기해야 하는 것, 그로 인한 꿈이 없음이 오히려 다양한 상황이다. 무언가를 하기 위한 돈도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20대는 누구에게 항변할 줄 모른다. 그걸 본 기성세대들은 그들이 답답하다고 말한다. 책 속의 은수는 그런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반문한다. "근데 이게 울 일은 맞나?"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고아가 된 것도 아니고 은수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은 울기에는 애매하기만 한 상황이다. 언젠가부터 우리의 청춘들은 모든 것을 자기 탓 하는데 익숙해졌다.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내가 못해서 세상이 그런 거고, 세상이 문제면 세상사람 전부 힘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내가 못한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자책하며 상황을 웃어넘긴다. 자조와 자학의 웃음, "괜찮다", "내가 나보다 더 투저"라고 소리치며 그들은 그냥 웃어넘긴다.

최규석의 『울기엔 좀 애매한』에는 이런 자학개그가 넘쳐난다. 은수와 원인이 나누는 대화는 자학의 절정이고 원장고 입시학원 강사의 대화도 자학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책

에서 청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읽어낸다. 돈, 꿈, 힘 한글자로 된 이 단순한 것들이 청춘을 어떻게 옥죄고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지 읽어볼 수 있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집회가 한창이다. 몇 번 하다 말겠지 했던 집회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여전히 누군가는 '사학을 먼저 개혁해야 한다. 잘대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다시 잘 들어다보자. 지금 그들이 왜 광장으로 나와 있는지, 그들에게 그것은 생존의 문제이다. 그것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일이며 더 이상 낮은 시급과 부당한 대우를 참아가며 일바를 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데이트 비용 앞에서 계산기 푹푹 누르지도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등록금을 내려주세요"라는 말은 "우리도 살고 싶다"는 그들의 항변이다.

삶의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일까?

『파운틴헤드』/ 에인 랜드 지음/ 휴머니스트

오늘도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을 한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실제 부딪치는 현실은 어떠한가. 하루에도 수십 번 경계를 넘나들며 줄다리기를 하지만 해결은 쉽지 않다. 인간의 이러한 고뇌를 다룬 소설이 여럿이 있지만, 최근에 읽은 『파운틴헤드』는 그중에서도 수작이다. 개인의 이상을 추구하는 하워드 로크를 통해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학적으로 성찰한다.

『파운틴헤드』는 전통을 거부하고 스스로 건축의 이상을 실현해가는 하워드 로크, 대

중의 취향을 따르며 성공을 지향하는 피터 키팅을 통해 인간의 도덕적 이상과 현실을 대비시킨다. 하워드 로크는 이상을 꿈꾸며 자신만의 건축세계를 만들어간다. 그는 스타턴 대학에서 퇴학을 당하고 우여곡절 끝에 그만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지만, 세상은 그를 별종으로 생각하며 비웃는다. 이와 반대로 피터 키팅은 지나치게 세속적이다. 대학을 수석졸업하고 최고의 건축사실에서 경쟁자를 하나씩 물리치고 제거하며 성공가도를 달린다. 현실 세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속물 지향의 인간상이라 할 수 있다.

자본이 중심이 된 현대사회가 개인에게 가하는 위협은 실로 막강하다. 자본과 권력은 육체는 물론 정신까지 지배하며 개인들이 규칙과 질서 속에서 살아갈 것을 강요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간은 어떤 가치를 좇아야 살아야 하는가? 작가는 말한다. 인간 자체가 목적이 아닌 한, 개인의 자아와 이상이 실현되지 않는 한 개인이란 이름은 없다고 말이다. 인간은 자신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그로 인한 결과물이 최고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고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현실과 타협하기보다는



윤종현 필명 '꽃다지' 네이버 책 분야 파워블로거 (<http://blog.naver.com/myplanup>)

인간이 목적인, 현실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워드 로크처럼.

■여인천하

한글 수호의 숨은 주역은 여성

어려운 한자는 양반들의 전유물이었고, 일반 백성들은 글이 없어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길이 없었다. 훈민정음 창제는 이를 안타까워한 세종의 애민정신이 묻어나는 휴머니즘의 산물이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뛰어난 언어라고 칭찬받는 한글이 정작 조선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했고 없어질 뻔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가?

중국에 대한 사대(事大)를 표방한 조선에서 독자적인 언어를 갖는다는 것은 오랑캐나 하는 일이라며 최만리와 같은 집현전 학사들과 유학자들의 상소를 올리며 반대하고 나섰다. 세종은 뜻 맞는 몇몇 집현전 학사들과 자신의 아들, 딸을 통해 비밀리에 한글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

창제 후에도 한글은 속된 말이라는 '언문(諺文)', 여자들이 쓰는 말이라는 '암글' 등으로 불리며 홀대를 받았다. 더욱이 연산군 대에는 왕을 비판한 글이 한글로 쓰여졌다는 이유로 대대적인 한글박해가 자행되어, 한글로 된 책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소멸 위기에 처한 한글이 수백 년간 명맥을 유지하며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여성'들 덕분이었다. 여성의 교육을 금지시킨 조선에서 여성들은 역설적이게도 한글을 통해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면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여성 지식인과 저작물을 배출하게 된다. 사대부 남성들도 자신의 누나나 어머니, 아내와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한글을 써야만 했기에 자연스럽게 한글이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

한문을 모르는 대비가 수렴정청(垂簾聽政)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 말을 내리고 대비가 옆에서 정사를 도우던 경우, 언문을 통해 왕과 신하들에게 교지를 내렸다. 역

사를 기록하는 사관들은 한글로 쓰여진 대비의 교지를 다시 한문으로 번역하여 실록에 실었다. 숙종 임금이 강릉으로 시집간 여동생 명안공주의 안부를 묻는 한글편지와 추사 김정희가 아내에게 쓴 한글편지들이 지금까지 전해진다.

『홍길동전』과 『사씨남정기』 같은 한글 소설들이 유행한 이후 역시 여성 독자들을 별로 인정받지 못했고 없어질 뻔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가?

궁중에서는 왕비나 궁녀들이 기록한 『서궁일기』, 『인현왕후전』이 등장하였으며 혜경궁 홍씨는 영·정조 시기의 궁중 사인 『한중록』을 남겼다. 안동 장씨의 요리서인 『음식디미방』이나 빙허각 이씨의 여성생활백과사전 『규합총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실험 노하우를 한글로 남긴 기록물이며, 이러한 책들은 집안의 딸이나 며느리 등 또 다른 여성들에 의해 필사되어 소리 없이 번져나갔다.

자신의 기록을 남긴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던 시절에도 여성들은 숨겨져 자신의 글을 남겼으며 이를 읽고 또 읽으며 전한 슬픈 여성들이 있었기에 한글이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양반 남성들은 한글을 천시하였지만 여성들은 한글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펼쳤다. 한글은 여성과 서민 등 힘없는 자의 글이 되어 주었다. 일제 식민지를 겪으면서 한글은 또다시 탄압을 받게 되었지만, 이는 오히려 우리글을 재발견하는 시기가 되었다. 독립의지는 한글사랑으로 이어졌고 한글은 우리국민 모두의 정서와 민족애가 묻어나는 국민 모두의 글로 재탄생하였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한글이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중심에는 한류팬 여성들이 있다.

최선경 · '왕을 낳은 후궁들', 저자

초상화에는 비밀이 있다? 없다?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 '초상화의 비밀' 전

조선의 화가들은 '터럭 하나라도 다르다면 그 사람이 아니다(毫髮不似 便是他人, 일호불사 편시타인)'라는 정신으로 초상화를 그렸다. 약 3백여 년 전 조선시대 이명기가 그린 강세황의 초상화를 보면 등글개 내려오는 콧날, 이마에 새겨진 굳은 주름, 움푹 들어간 원을 그리는 눈자위와 주변의 주름, 희끗하게 내려와 얼굴 라인을 덮고 있는 '터럭' 한 올까지 세세하게 느낄 수 있다.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 전시관에서 오는 11월 6일까지 열리는 '초상화의 비밀'전은 1979년 특별전 개최 이후 32년 만에 여는 초대형급 초상화 관련 전시로 태조 이전부터 바로크의 거장 루벤스가 그린

조선인 드로잉까지 약 2백여 점의 초상화를 전시하고 있다. 이명기, 김홍도, 박동보, 김희겸, 조중묵, 이한철, 채홍신 등 당대 최고 화가들의 국보급 초상화도 여러 점이다.

▲눈앞의 인물을 그대로 화폭에

몇 백 년 전 초상화 한 점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유추해낼 수 있다. 조선조 초상화에서는 눈에 보이는 인물 그대로를 사실적으로 재현하려고 노력했다. 인물의 천연두 자국이나 기미, 주근깨, 반점 같은 피부상의 특징은 물론, 눈썹의 묘사나 수염처리에서도 그 노력의 흔적이 드러난다. 초상화를 바라보면 마치 실제 인물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느낌

을 준다. 조선미(성균관대 미술학과)교수는 그의 저서 『한국 초상화의 세계』에서 "한국 초상화는 애곡이나 변화를 통한 실제인물 이상의 회화적 의도도, 특징의 강조를 통한 의도적 과장도 추구하지 않았다. 오로지 실제 인물에 접근하기 위한 사실적 노력만이 극진했다."라고 언급했다.

이런 점은 인물의 수염처리에서 더욱 극명히 엿볼 수 있다. 수염은 곧 안면의 연장이라는 생각으로 먼저 살구색으로 칠한 뒤 흑선과 백선을 교대로 한 올 한 올 세밀히 그려 나갔는데, 바로 그 정교함은 다른 나라에서 찾기 어려운 정도이다.

어울리던 심득경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이를 애몽하게 여겨 그 해 11월에 그를 추모하는 초상화를 그렸다. 이들의 우정은 예의가 있는 친교이기에 더욱 돈독해 보이며, 초상을 대하는 우리는 마음 속 깊이 자리한 고독감을 치유하게 해 준다.

전시는 총 4부로, 1·2부는 왕실의 통치자 초상과 삼강오륜에 기초한 군신, 부유, 부자, 부부의 초상화로 구성되어 유교 통치 이념과 화풍의 계승, 가문의 위상 등을 보고 느낄 수 있다. 3·4부는 사적인 초상화가 발달하는 과정으로 보다 자유로운 개성과 자아의식이 반영되는 초상화의 면모를 감상할 수 있다. 자아 성찰과 자기 정체성에 대한 탐색 과정으로서 자화상과 일상생활 속의 초상화를 제시한다. 이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사진의 도입으로 초상화의 전통 기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볼 수 있다.

선조들에게 초상화는 거기에 그려진 인물 그 자체였다. 다시 말해 초상화는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의미였다. 고요하게 침묵하고 있는 초상화가 사실은 수많은 역사적 비밀을 은뎠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지 않은가.

문화부

▲초상화 속 인물들의 보이지 않는 관계

전시는 몇 개의 흥미로운 테마로 나뉜다. 특히 '역사의 맞수', '별지 않는 우정', '가문의 위상' 등의 테마는 초상화 속 인물을 동시대의 사람인 듯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초상화에서는 인물의 생김새에 그치지 않고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초상화 속에 등장한 인물들의 관계는 역사적인 사건, 철학, 학문세계 등을 통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평화롭게 나란히 걸린 송시열과 윤증 그리고 허목의 초상은 아무 말이 없지만 수세기 전 이들은 조선을 뒤흔든 성리학자들로 수많은 에피소드를 남긴 장본인들이다. 송시열과 허목은 국가 최고 권위의 상징이었던 '왕실에서 상복을 열마간 입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싸웠다.

주자학의 절대주의자로서 존명배척의 정치철학을 지닌 송시열과 그 반대편에 있었던 윤증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도모하고 현실에 바탕한 정치를 꿈꿨다. 그들의 초상화에는 봉당정치 밑바닥에 흐르는 정치 철학과 사상이 숨겨져 있다.

이들은 초상화에 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허목은 '정신은 유형이 아니라 무형이므로, 무형을 본뜬 수 없다'라고 하여 초상화의 본질을 부정하기도 했다. 또한 송시열은 당시 사대부들과는 달리 자신의 초상화를 제작하는 데에 적극적이었다. 단순한 피사자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존재감과 의식을 적극적으로 투영시키는 사람이었다. 반면 윤증은 초상화 그리는 것을 극히 꺼려하여 화사가 공부하는 선비로 꾸며 몰래 그를 관찰해 초상화를 그릴 정도였다.

윤두서는 심득경의 초상에 애정어린 시선을 담아 코가 단정하고 붉은 입술에 기품있는 모습으로 그려냈다. 윤두서는 매일같이

- ① 윤두서, 자화상(自畫像, Self-Portrait of Yun Du-seo), 조선 18세기, 해남 녹우당
- ② 윤두서, 심득공 초상(沈得卿 肖像, Portrait of Shim Deuk-gyeong), 조선 1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 ③ 장경주, 윤증 초상(尹拯 肖像, Portrait of Yun Jeung), 조선 18세기, 충청남도 역사문화 연구원



Diamond Records



블루스 거장의 귀환

《Unplugged(언플러그드)》

90년대 초반 미국의 MTV에서는 전자 악기를 배제한 새로운 음악을 유행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그 작업의 최전방에는 '언플러그드(Unplugged)'라는 프로그램이 자리하고 있었다. MTV는 이 프로그램을 저명한 아티스트들을 참여시켜 관객들에게 호응을 얻고자 했다.

기타리스트계의 거장 에릭 클랩튼(Eric Clapton) 역시 그 저명한 아티스트 중 한 사람이었다. '슬로우 핸드(Slow hand)'라 불리던 그는 세계 제일의 블루스 기타리스트이자, 한때 '기타의 신'으로까지 추앙받던 아티스트였다. 또한 크림(Cream), 블라인드 페이스(Blind Faith), 데릭 앤 더 도미노즈(Derek & the Dominoes) 등 그가 몸담았던 밴드들 역시 록 음악 역사상 최고의 밴드들로 추앙받고 있었다. 에릭 클랩튼이 통기타를 잡자준다면, 그 앨범은 이슈가 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에릭 클랩튼은 이 앨범을 만드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평생 일렉트릭 기타와 함께했던 그가, 갑자기 통기타를 연주하는 것은 매우 어색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의 계속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MTV는 끈질기게 설득했다. 결국 에릭 클랩튼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다. 자신의 명곡이라 할 수 있는 곡들을 어쿠스틱 버전으로 편곡하고, 새로운 몇 곡이 만들어졌다.

90년대를 주름 잡았던 《Unplugged(언플러그드)》는 이처럼 힘들게 세상 빛을 보게 되었다. 앨범은 나오자마자 차트에 이름을 올리며 승승장구 했다. 전체 판매고가 천 만장을 돌파하면서 다이아몬드 레코드를 획득했고, 1993년도 그래미상 6개 부문을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또한 앨범의 성공은 로드 스투어트(Rod Stewart), 닐 영(Neil Young) 등 이름

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언플러그드 음반을 기획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 앨범의 주역은 'Tears in heaven(천국의 눈물)'이라는 곡이다. 'Would you know my name? If I saw you in heaven.(천국에서 널 만나면 널 날 알아볼 수 있겠니?)'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이 곡은 에릭 클랩튼이 자신의 아들에게 바치는 곡이었다. 앨범이 만들어지던 당시 에릭 클랩튼은 사고로 아들을 잃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있었다. 그는 자신의 슬픔을 이 곡 하나에 담아 천국에 있을 아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이 곡에는 이런 에릭 클랩튼의 슬픔이 서정적인 블루스 사운드와 가사로 대체되었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가족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결과적으로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블루스라는 장르가 만나면서 진정성 있는 음악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가 주로 다루었던 '블루스(Blues)'라는 장르는 '파란색'의 이미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슬픔이나 고통을 아름답게 드러내는데 적합한 음악이었다. 앨범에 수록된 대부분의 곡들이 서정적인 느낌을 간직하고 있는 것도 바로 블루스의 뛰어난 감정 표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 앨범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블루스의 느낌을 에릭 클랩튼이 누구보다 잘 살려냈다는 것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연주로 승화시키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에릭 클랩튼 본연의 장점이었다. 에릭 클랩튼이 카를로스 산타나(Carlos Santana)와 함께 90년대 기타 거장들의 귀환 대열에 당당하게 진입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음식傳

음료계의 만년 2인자 '송농'



밥을 먹고도 약간 출출할 때, 소화가 잘 안 될 때 혹은 땀이 났을 때 구수한 것이 먹고 싶을 때 으레 찾게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송농이다.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송농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송농의 등장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솔이 한 몫을 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솔들은 대부분 쇠나 철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져 무게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자주 내려서 설거지를 할 수 없었다. 게다가 밥솥에 남아있는 누룽지는 끈적했던 조선의 농민들에게 버릴 수 없는 귀중한 음식이었다. 때문에 솔에 물을 붓고 누룽지를 함께 끓여서 먹었던 것이다.

또한 송농은 밥의 은은한 단맛과 누룽지의 구수한 향이 더해져, 맛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랬던 송농이 '2인자 노릇'을 하게 된 것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유교가 급격하게 전파됨에 따라 차를 선호하게 되면서부터이다. 당시 중국에서 전래된 유교의 제사상에서

차는 뭘 수 없는 존재였고, 당연히 차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었다. 또 중국에 대한 사대의 식으로 인해 차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욕구도 점차 강해졌다. 결과적으로 양반 계층에 차가 대우행하게 되면서 송농은 차에게 1인자의 자리를 내주고 '만년 2인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

송농의 입지가 더 좁아지게 된 계기는 커피의 등장이었다. 개화기에 서양으로부터 보급된 커피는 먼저 왕실에서 소비되다가 점점 그 보급이 확대되어 대중들에게도 친숙한 음료가 되었다. 이미 조선에서는 약간 달게 마시는 차를 선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 탕을 넣어 먹는 커피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차와 커피에게 자리를 뺏긴 송농은 '만년 2인자'라는 이름마저도 위태위태한 상황이 되었다. 점점 강경으로 송농은 일제강점기에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된다. 전기밥솥이 무거운 가마솥을 밀어내고 서민들의 부엌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에서 생산된 전기밥솥은 밥을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지은 밥을 계속 따뜻하게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가정에 급속도로 보급되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전기밥솥은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았고, 현대대부분의 가정에서 전기밥솥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전기밥솥에서 누룽지가 거의 만들 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송농의 주된 원료라고 할 수 있는 누룽지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송농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송농은 서민들의 밥상에서도 위축되고 말았다.

하지만, 송농은 밥을 지은 그릇에 물을 붓고 끓이기만 하면 만들 수 있고, 맛이 강하지 않아 식후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아직도 우리와 가까운 음식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1인자의 자리를 되찾기 힘들겠지만, 밥이 우리의 주식으로서 명맥을 지키는 한 송농 역시 본연의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사진이야기



해가 질 무렵 이집트에서 사막을 지나다가 찍게 된 사진입니다. 두 낙타가 서로 눈이 맞았는지 저 멀리서부터 걸어서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쌍의 낙타가 삭막한 사막배경과 완전히 다른 다정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어 그 순간 셔터를 누르게 되었습니다.

김현호(경명 3)

종이보다 읽어야 읽어야 안습니다



제26회 한성문허상 현상 공모

✓ 참가대상 : 본교 학부 재학생	
✓ 모집부문 : 단편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시 (5편 이상)
✓ 마감일 : 11월 4일 (금) 오후 6시	
✓ 발표일 : 11월 28일 (월)	
	수상작 발표와 수상작은
	11월 28일 발행하는
	한성대신문 456호에 게재

(10x20)

✓ 상금 : 단편소설 60만원 (1명)	
	시 40만원 (1명)
✓ 제출방법 : 한성공지 4008번 게시글에	
	첨부된 '한성문허상 출판작
	정보' 파일에 내용 기재 및
	출력 후, 작품 앞면에
	부착하여 방문 제출

(10x20)

문의 : 760-4186/ 010-4534-9882/ press@hansung.ac.kr
 장소 : 학생회관 제1별관(우편취급소 건물) 2층 한성대신문사

※한글 파일에서 원고지 서식으로 작성하지 마시고 일반 문서
 모양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원고지 매수는 (파일-문서정보-
 문서동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자 성명은 출판작 정보란에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 내 표기 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상작은 공모작품의 수준에 따라 기적으로 선정될 수도 있
 습니다.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